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2월 25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67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젊은 날에 예배 드리는 삶에
우선순위를 맞추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손찬하 -

할렐루야!

저는 은혜와진리교회 안산성전 청년봉사선교회에 소속하여 교회를 섬기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젊은 날에 영혼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저의 가장 큰 고민은 과연 병영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지혜롭게 군무에 잘 적응하는 한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잘 지킬 수 있을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있을까, 불신장병들에게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성도라는 칭호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염려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훈련소를 나와 자대에 배치를 받고 보니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복무 환경이었습니다. 부대 특성상 주중, 주말, 연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여러 가지 많은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대에서 병사들이 평일에는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개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복무하던 때만 해도 규제가 많고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저의 군 복무 기간의 절반 정도가 지날 때까지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어 교회당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대 안팎의 환경이 예배를 잘 드리기 어려운

상태에서 저는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부대 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우리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여 열심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지휘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전역하는 날까지 저는 온라인을 통해 주일예배와 주중예배는 물론 청년토요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와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시편 27:4) 할렐루야!

군생활 중에 육체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일로 인한 문제 등으로 생각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심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먼저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불출 되면 가장 먼저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여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와 같은 주님의 일을 교회 안팎에서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와 위로를 베푸심을 체험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군 복무 중에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이처럼 믿음이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 복무를 잘 마치고 전보다 굳세어진 믿음과 충만해진 사명감으로 예배중심, 교회중심의 생활에 힘쓰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영혼이 거둬지고 영생을 얻었으니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며 세월을 아껴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과 열정을 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드러나는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제가 말세지말에 살고 있음을 확연하게 느낍니다. 이러한 때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성경 말씀으로 시대적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창조신앙·구속신앙·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성령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은혜와진리교회에 소속하여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성도로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적극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에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종일 즐겁게 봉사하고, 귀한 우리 청년들과 여러 가지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귀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데도 어두운 마음과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세상의 문제들이 저의 마음을 짓누르며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며 성경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도록,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때가 때인지라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리사욕 없이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헌신하는 바른 정치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며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루하루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이를 생활에 적용하여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이 복음화 되어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이 울려 퍼지고 저와 가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여 나아가게 해주신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베드로후서 3:9) 아멘. 내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생각으로 오늘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린도후서 4:17,18) 할렐루야! 우리 성도와 늘 함께하시고 우리 성도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립니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삼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종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소로 70-9 (내소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명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창로102번길 56(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278(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들로 55(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생계로2(생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1권 (제6단원 :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37과) 전도를 위해 보내심 받은 70명

- 본문 : 누가복음 10:17-20
- 요절 :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눅 10:20)
- 찬송 : 253장(새찬송가 521장), 258장(새찬송가 500장)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 중에서 복음 전도를 위하여 12제자 외에 70명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에는 12제자의 이름은 기록되었으나 이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

다. 예수님은 이들을 각지로 보내시면서 12제자를 보내실 때처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이들의 앞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을 받은 70인의 전도자는 각지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였고 마침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돌아와서 예수님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전도사역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시며 그들의 성공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 나갔을 때 병고침이나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보다 더 소중하고 복되고 기뻐해야 할 일이 있으니, 곧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 것과 그 사람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처럼 소중한 자격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공과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살펴봄으로 이미 얻은 복을 활용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제자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열 한 제자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막 16:17,18)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교회로 하여금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며(마 16:18), 사탄의 울무에 붙잡혀 있던 자를 풀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요 1:12)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를 앞세워 불신앙의 영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 불신자의 마음이 성령으로 녹아지고, 묶였던 사탄의 울무가 풀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소원을 갖도록 만듭니다.

이같은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영위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도들에게 이같은 권세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적극 활용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무력하던 사람이 변화되어 활기찬 전도자가 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과거와는 달리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목마른 영혼들의 부르짖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성도가 되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전도함으로 전도의 성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땅에 묻어 두지 말고 전도하는 일을 통해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활용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주님을 앞장세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던 70인의 제자는 주의 이름 앞에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놀라운 경험을 맞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원수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쏘고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계 9:3). 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 전도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70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능력을 행할 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악귀 들린 자에게 가서 ‘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물리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악귀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제어하니 그들은 놀라 도망쳤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처럼 낭패와 망신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앞장세우고 나가게 되면 전도의 모든 결과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3. 복음 전도자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도의 성과에 기뻐하며 돌아온 70인의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와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야말로 귀신을 쫓는 권세보다 더 귀한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가 이룩한 일의 업적을 통하여 얻은 기쁨에 도취되어 자기만족에 빠지면 안됩니다. 오히려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받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로써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내 이름을 불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는 성도는 전도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성도들은 자기들의 이름이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환난이나 고난이 다가와도 기뻐하며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순교의 형틀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결코 이 기쁨을 잊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이같은 기쁨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심정에서 흘러나온 기쁨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의 기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감격하게 된 성도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각 나라별 선교회

| 구분 | 중국선교회 | 인도선교회 | 말레이시아선교회 | 일본선교회 | 인도네시아선교회 | 페루선교회 | 미얀마선교회 |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
|------|--|------------------------------------|---|---|------------------------------------|-------------------------------------|-------------------|-------------------|
| 담당성전 | 안양,산본,포일,부곡 | 수원,영통,진위,전원,동탄,안중,평택,용인,남양,울진,전주호자 | 안산,시화,시흥,인천,부천,부평,영종도 | 과천,판교,강남,구리,광주 | 광명,영등포,원주,천안 | 일산,김포,장유,전주평화 | 수원,양주,서산,당진 | 수원,대구,세종 |
| 연락처 | T:031-448-1793 T:031-443-3731~2 (구내 112) C.P:010-4564-7539 | C.P:010-5358-1233 | T:031-487-1793 T:031-487-1397 C.P:010-5018-3686 |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5200 | T:02-894-3731 C.P:010-8277-2944 | T:031-906-3731 C.P:010-5335-7050 | C.P:010-5358-1233 | C.P:010-5358-1233 |
| 성가단 | 그리스 앤 트루스 미션콤파이어 | | | | | | | |

◆주요선교업무

- IMCR (International Ministries & Church Revival Conference: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회의) 세미나 개최 및 회보 발행
- 문서, 방송선교 지원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 세계선교연합회 소식지 발간
- 각 지역 선교센터 설립 운영 지원
-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교회 해외 선교행사시 동참
- 당회장 목사님의 외국어 설교집 발간
- 본교회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홍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